

잔디 광장에 숲길까지...여기가 '멍멍이 천국'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서 산림욕 수도권과 가까워 힐링여행에 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솔카페(대표 차군규)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대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정돈된 오솔길에 카페 곳곳에 있어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사진제공 | 팻뉴스

팻팻족(Pet+Family)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사계절 내내 팻팻족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힐링 장소가 각광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반려인들의 마음이지만 동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카페 '다솔'이 바로 그런 곳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우려로 야외 생활을 즐기지 못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해발 300미터의 힐링 공간이 바로 다솔카페다. 소나무 숲속의 야외 광장은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하고 산책로 곳곳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야생화들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에게 활력을 준다.

반려인이 카페에서 쉬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 주변 산책로인 숲길과 천연 잔디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천연 잔디 운동장은 물론 산속 어디를 가나 길이 잘 다듬어져 있어 이곳을 찾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에게 최고의 힐링과 편안함을 준다.

근사한 오솔길도 곳곳에 있다. 소나무 향이 가득한 것은 물론 조용한 분위기에 산새소리만 들리는 이곳은, 반려동물과 산책을 즐기기에 좋아 다음에 또 방문하

고 싶은 카페다.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산IC까지 1시간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주변 풍경이 좋아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다.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의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고 피톤치드를 뿜어대는 소나무 숲길을 거닐며 산림욕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돌레길을 걷다 보면 폐 속 깊숙이 맑은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환상적이다.

탁 트인 카페 주변에 야외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봄부터 겨울까지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영화 속에서도 나올법한 멋진 스톱 웨딩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제다리가 있는데 특히 야경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로변에서 굽이굽이 돌아 올라가는 카페진입로부터가 방문자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다솔카페 바로 옆 아름다운 한옥집의

온돌방은 대한민국 구들 명장인 안진근 명장이 황토와 옥돌 구들장, 편백잎을 이용해 직접 시공한 방이다. 예약을 하면 묵어갈 수도 있는 침침산중의 또 다른 추억의 장소인데 오직 한 팀만 이용 가능하다.

카페 주변의 가볼만한 곳으로 해미읍성, 개심사, 서산 용현리 마에여래 삼존상까지 둘러보고 가벼워져 삼겹살로 허기를 채우면 최고의 힐링 여행이 된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아이러브펫

스프링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13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동물학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벌에 처해야 학대 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 | 팻뉴스

동물학대 피의자 늘어나는데 실형 선고는 단 4건 뿐이라고?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제대로 집행 안돼

최근 반려동물을 때리고 고문하거나 심지어 잔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동물 학대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임신한 상태라 벅속의 새끼 2마리도 함께 죽어있었다.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달 전 신체가 크게 훼손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 있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상반신과 꼬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수의대생 유튜브가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동물 학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4년 새 두 배 늘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규정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동물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동물을 학대한 이들이 사람에게 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미리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학대 행위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반려동물 키우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외로워서"

책임감 증가·공정적 사고 등 장점 대다수 양육비용 위해 생활비 줄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도 반려동물을 키운다. 가족이나 어려운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면 어떻게 살까 싶지만 취약계층은 '동물을 좋아해서' 혹은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29.7%)'가 가장 많았다. '외로워서(20.4%)', '우연한 계기(17.6%)' 등이 뒤를 따랐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답변이 엇갈렸다. 20대는 '동물을 좋아해서(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0대(31.1%)와 80대(24%)는 '외로워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덕분에 책임감이 증가했으며 외로움 감소,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건강·자신감 향상 등 장점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비용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취약계층이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 평균 13만8437원, 반려묘 12만4346원이었다. 이 같은 비용은 일반세대의 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양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37.7%), 신용카드로 처리(22.7%)하기도 했으며, 돈을 빌리거나(7.8%)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4.5%)도 있었다. 응답자의 62.1%는 반려동물에 대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18일까지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최근 서울시가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외로워서' 키우는 응답이 20.4%를 차지했다. 사진제공 | 팻뉴스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2018년 빅히트! 업소용 이동식 에어컨

센추리를 구매해야 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2. 냉방·난방 성능이 똑같은지??
3.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만든회사인지??
4.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